

출장보고서

1. 출장 개요

☐ 목적:

1. OECD의 EPC (Economic Policy Committee)회의 참석
2. EPC(Economic Policy Committee)는 OECD 산하 위원회로서 세계경제 전망과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을 검토·평가하는 회의

☐ 출장지: 프랑스 파리

☐ 출장자: 송인호 부연구위원

☐ 출장 동행자: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, 이지은 사무관, 한국은행 신운 조사국장

☐ 기간: 2012년 11월 10일~14일 (4박 5일)

○ 출장 일정

* 11월 10일(토): 출국 (인천 → 파리)

* 11월 11일(일): OECD EPC 회의를 위한 사전 미팅

* 11월 12일(월) ~ 13일(화) : OECD EPC 회의

* 11월 14일(수) : 귀국

2. 출장 활동 내역

☐ 미국관련 발언 및 답변 내용

- 양적완화정책등으로 금융건전성 및 주택시장의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남
- 그러나 여전히 다른 OECD국가들로부터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제기
-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모두 현재의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성 제기

1) 통화정책관련하여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

○ 재정건전성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을 현재의 통화정책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 질의

○ 답변내용:

●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양호한 모습

1). 주택경기회복이 고무적임 :주택가격의 7% 상승 및 주택거래 활발히 이루어짐

2). 그러나 여전히 유로지역의 불확실성이 해외수요 위축으로 연결되어 우려 표시

● 양적완화정책의 탄력적 운용

1). 주택경기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

2). 금융안정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피력

●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은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 예정.

1).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위해 급격한 재정조정은 고려치 않음

□ 일본관련 발언 및 답변 내용

○ 최근의 소비세 인상이 소비의 악화로 연계되어 경기회복에 차질을 가질 수 있지 않은지 질의

1)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 때 1차로 소비세 인상이 있을 후 실제 경기회복이 지연되었음을 실증 분석

2) 지금의 두 번째 소비세 인상은 첫 번째보다 큰 폭으로 나타나 5%에서 10%에 이릅니다

○ 그 외 경기 위축의 원인이 수출의 감소와 에너지 가격 인상이 거론 됨

○ 답변내용:

● 최근의 소비세인상은 잠정적인 요소임 (TRANSITORY FACTOR)

● 소비의 위축으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

□ 유로지역관련 발언 및 답변 내용

○ 최근의 OMT를 통한 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 고

려해야할 사항 언급

- 1) 독일을 비롯한 안정 유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모기지금리 및 통화금리간의 차이가 2008년 이전에 1% 미만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3%이상으로 확대되어 완화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됨
 - 2) 정책의 신뢰성회복이 관건임. REBALANCING은 특히 국가간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어 있어 EU 차원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국가간 정책 신뢰도 회복이 중요할 것임
- Rebalancing과 Deleveraging이 가계와 기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이슈가 됨
- 답변내용:
- 정책신뢰회복이 관건임
 - 국가간 IMBALANCES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
 - 현재의 상황은 국가 간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어 EU의 통화 및 재정정책 (재정건전성)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
 - 국가간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점검 요인임
- 1) 정보의 비대칭성이 대두됨.
 - 2)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가 필요

□ 라운드별 진행은 별첨 참조